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77년 전국의료보험협의회로 출범하여 1988년 의료보험연합회로 개편된 후 2000년 7월 지금의 모습으로 새롭게 발족되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진료비를 심사,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이라는 미션 아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부적절한 진료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요양기관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진료비 확인신청, 의약품 정보관리, 응급의료비용미수금 대불심사, 정부정책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비전을 모색하고자 지난 5월 「국민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이라는 주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국제심포지엄은 미국 RAND 연구소의 Brook 부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진료비심사시스템」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 「의료의 질과 성과보상」 「진료비지불제도」의 4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0년 동안의 우리의 성과를 내·외빈께 알리고, 일본·대만·프랑스의 경험과 당면과제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외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HIRA정책동향」에서는 지난 국제심포지엄의 결과를 보다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각 세션별로 발표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심포지엄을 통해 제시된 논의와 쟁점들은 국민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국제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와 발표 및 토론을 해주신 국내외 전문가,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윤구